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완주 상생협력 '본 궤도'

3차 협력사업 추진 협약... 도서관 문화협력·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일원화 등 2개 사업 추가 발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2차협약을 맺은 지 보름만에 추가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양 시군의 상생협력의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3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일명 '도서관 문화협력사업'과 '전주풍남학사 입사생자격 완주군민 확대 사업'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도서관의 회원가입과 전주풍남학사(전주시 운영 서울 소재 장학숙)의 입사생 자격을 주소지에 관계 없이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도서관 문화 협력 사업'은 양 지역 주민이 거주지 인근 도서관 어디에서나 회원가입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공주팔취도서관의 경우 완주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한 생활권에 살고 있는 전주 시민의 도서관 회원가입이 어려웠으나 금번 협약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가 한층 나아지게 됐다. 아울러 전주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 여행코스 지도 제작에 심례책마을과 그림책미술관을 포함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해 양 지역의 도서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전주풍남학사에 완주군민 자녀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완주군 우수 인재에게 안전한 생활지원과 편안한 수확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완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공공학사 정원은 전북장학숙 등 2개소에 총 10명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많은 완주군민 자녀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와 양 시군은 지난 1차 협약 때 약속한 수소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해 수소서비스 확대 보급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고 추가 협약했다.

'수소서비스 확대보급 사업'은 전주시



1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완주 3차 상생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사진 가운데)와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오른쪽), 유희태 완주군수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3차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서 운영 중인 시내 시외버스 차량을 순차적으로 수소 버스로 보급해 관내 수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전주시에서는 2023년까지 시내버스 51대를 수소버스로 구입해 총 90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번 두 차례 협약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 인재양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주민생활에 스며들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계속 만날 때마다 양 지역 상생발전이 현실화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며, "좋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3차 협약을 통해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이 시군 경계에 얽매이지 않은 채 편하게 문화생활을 누리고, 지역 인재들이 함께 어울리며 키나갈 환경을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어 한다"며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상생협력력을 통해 양 시군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해 양 시군 주민의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협약한 사업도 전북도-전주시-완주군간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구체화하고 있다. 공력 세전 정비를 위해 올해 초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전주시에서 사업신청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급식 농산물 상호 공급도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소로 인화, 공급체계 개선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김재훈 기자

수소 전문기업, 완주에 투자

에테르씨티, 전북도·완주군과 투자협약 체결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597억 투자·130명 고용 창출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수소 전문기업인 (주)에테르씨티가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단(이하 산단)에 대규모 투자를하기로 해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외투기업인 플라스틱유니엄 코리아 뉴에너지(주)에 이어 수소 분야의 두 번째 대규모 투자 협약이어서 '국내 수소경제 1번지'를 향한 완주군의 발걸음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사진 3면)

김관영 도지사과 유희태 완주군수, 위선호 (주)에테르씨티 대표,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주) 사장은 16일 오전 11시 30분에 전북도청에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주)에테르씨티 투자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산단 부지 7만321㎡(2만1,272평)에 2025년까지 총 597억원을 투자하기로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완주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에테르씨티는 계획 기간 내 투자와 130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에테르씨티는 복합소재 압력용기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원소재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에 신설되는 공장은 이런 복합소재를 활용한 운송용 초대형 압력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압력용기 재검사장을 설치해 수소용기 사용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완주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은 (주)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도내 탄소산업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테르씨티는 △완주군이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라는 점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 는 지역 △탄소도시 전주와 인접해 있다는 점 등을 눈여겨 본 것

으로 알려졌다. 수소와 탄소를 융합한 사업하기에는 완주군만한 곳도 드물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테르씨티의 투자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479억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했으며,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분할도 협약 기준 60%까지 상승하게 됐다. 현재 협상을 완료한 2개 기업의 투자협약까지 체결될 경우 분할률은 71%대로 올라가게 된다.

완주군은 테크노 제2산단에 각종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등 대한민국 물류 메카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수소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에 나서 '물류와 수소'의 양대 축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해 수소 전문기업을 집적화하는 등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의 입지를 확실히 굳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들어 외국계 기업인 플라스틱유니엄 코리아 뉴에너지(주)에 이어 수소 전문기업인 (주)에테르씨티가 완주군에 투자하기로 해, 수소경제 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전문기업 성장을 위해 군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위선호 대표는 "전북 완주는 수소산업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수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최적지이다"며 "지역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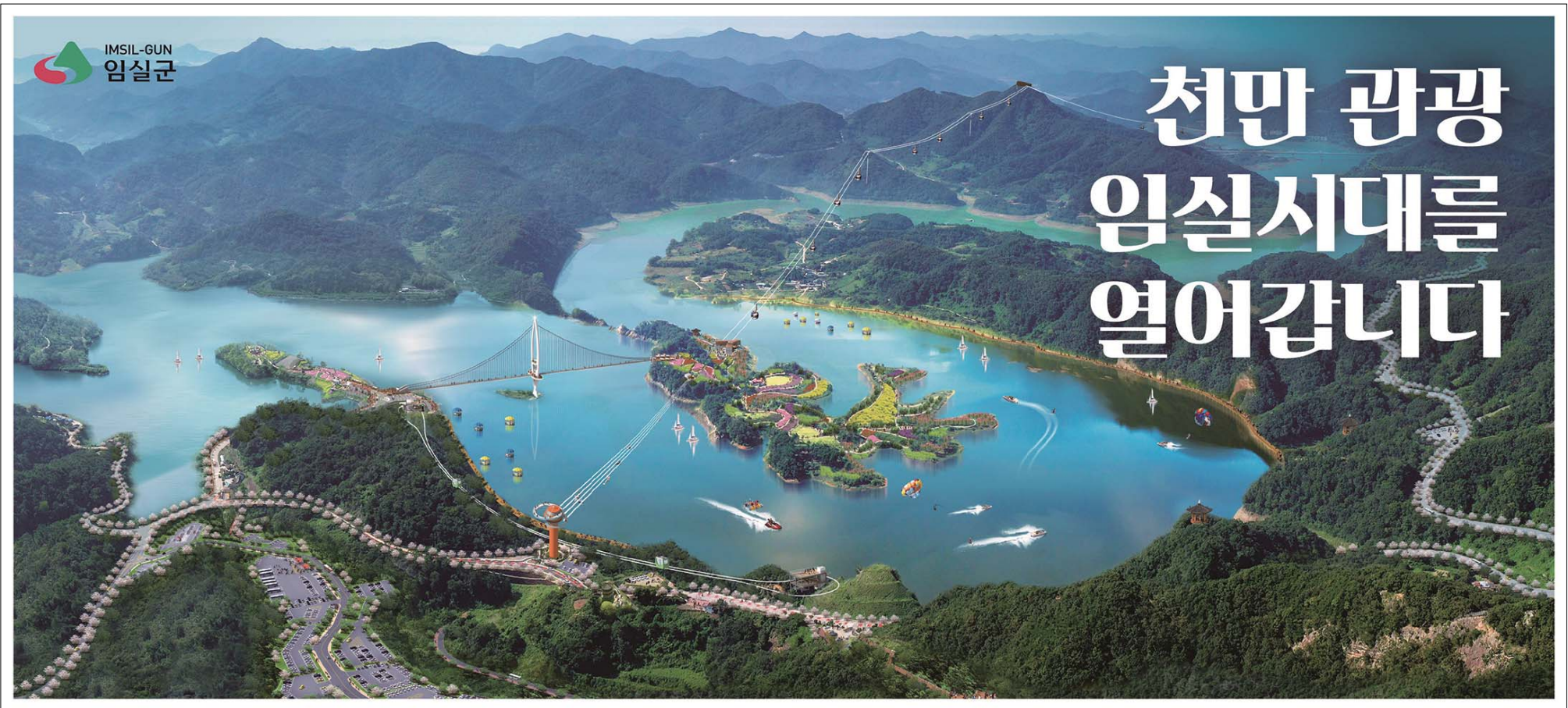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미래성장산업인 수소산업 연관기업을 연달아 유치하게 된 점은 뜻 깊은 일이다"며, "(주)에테르씨티가 전북도에서 더욱 성장해 글로벌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2023 새만금잼버리 온라인 스토어 오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회의원 김윤덕 이하 조직위원회)는 16일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종 세계잼버리 기념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홈페이지 주소: www.2023wsjcamp.com)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잼버리 행사가 종료되는 8월까지 의류, 봉제류, 액세서리류 등의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제작이 완료된 상품(티셔츠, 무명보통 스포츠화를 핸드폰 그립톡)부터 순차적으로 상품 라인업을 확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조직위는 이번 온라인 스토어 오픈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전제품 대상으로 20% 할인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재훈 기자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

IMSIL-GUN
임실군